

“내년 아시안게임까지는 현역으로”

박태환, 새해 첫 공개훈련으로 힘차게 'START'

‘미린보이’ 박태환(28·인천시청)이 새해 첫 공개 훈련으로 2017년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박태환은 23일 오전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박태환수영장 보조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박태환측의 매니지먼트사인 팀CAMP 관계자는 “작년 12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을 마친 뒤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오늘이 사실상 첫 훈련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볍게 몸 풀기 위주의 훈련을 진행했던 박태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넘게 물살을 갈았다.

수영장은 박태환을 보기 위한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메인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반인 이용객들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박태환의 담노라 분주했다.

박태환에게 2016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3월에서야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에서 벗어난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올림픽 포기를 강요하는 발언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무대를 밟았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한 그는 전 종목 예선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 물 갔다던 병혹한 평가를 받던

그는 10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400m에서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기록(3분43초49)에 불과 0.19초 뒤진 3분43초68을 찍으며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00m·200m·400m·1500m 금메달을 쓸어 담아 4관왕에 등극했고 캐나다에서 열린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3관왕에 오르며 정상 कै도 진입을 알렸다.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이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과는 달리 세계 유명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진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무대다.

박태환이 세계선수권(롱코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가 마지막이다.

2013년과 2015년 대회에는 휴식과 도핑 징계로 불참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금 더 욕심은 내고 있는 종목은 자유형 400m다. 박태환이 올해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2007년 멜버른 대회와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박태환은 “작년 캐나다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15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자유형 200m와 400m가 중점이 될



23일 오전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공개훈련을 마친 박태환이 새해 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미소 짓고 있다.

것”이라면서 “자유형 400m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낸 종목이다. 나의 상징적인 종목이다. 200m보다는 400m 우승의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2018년으로 예정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도 욕심을 내비쳤다.

내년이면 한국나이로 30살이 되지만 철저한 관리로 다시 한 번 아시아 정상에 서겠다는 각오다.

“내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수영 선수

생활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팬들의 궁금증 하나를 덜어준 박태환은 “내년 아시안게임은 올해 세계선수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의 아쉬움이 많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세계선수권을 잘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훈련을 이어가게 될 박태환은 2월 중순께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체육회, 제6차 이사회개회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3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재적이사 19명이 참석하여 임원변동사항과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는 굵직한 국제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체로서의 기회이므로 전북 체육인들의 열정과 패기가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며 “동계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이 집중력을 발휘해 19년 연속 종합 4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는 2016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결산심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건을 의결하였다.

/김민근기자

임실군체육회, 이사회

임실군체육회(회장 심민)는 지난 20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정나영 교육지원청장 등 임원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결과 및 결산심의 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건, 규약개정 건, 종목단체 가입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농민교육장에서 대의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민 회장은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주여고 컬링부, 전국동계체육대회서 값진 은메달

전용 훈련장 없는 열악한 환경 속 강도높은 훈련 '결실'

여고부 컬링 전통강호 전주여고(교장 송인순) 컬링부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경기 여자고등부에서 값진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전주여고는 8강에서 대구 상인고 4강에서 서울 대원외고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로는 현재 주니어 국가대표 경기도 송원고등학교를 만났으나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전주여고가 금번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모델로 뽑히는 컬링 학생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적으로 선수를 지도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의 열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여고 컬링부는 전용 훈련장이 없는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도 서울 태릉과 전주 화산빙상장을 오가며 피나는 연습을 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준우승을 차지한 전주여고 컬링부는 감독 이상락, 코치 김대석, 3학년 박지현, 김향미와 2학년 모시은, 1학년 박솔민, 강지민 선수로 구성됐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습까지 소화하며 주말과 새벽, 야간 훈련을 활용해 얻은 결과다 더욱 값진 결실이라는 평가다.

전북컬링경기연맹 김세곤 회장은 “이번 전주여고의 동계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은 전북 컬링을 전국 최고로 만들고 싶은 연맹 임원과 지도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



해 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

단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같이가요 FOREVER, 전북장애인체육회 후원금 전달

도내의 친목 봉사 단체인 ‘같이가요 FOREVER’가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를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은 같이가요 FOREVER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전념하는 도내 장애인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으로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장애인체육회 노정일 사무처장은 “후원금 모금에서부터 전달까지 함께 노력해준 ‘같이가요 FOREVER’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성어린 후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